

냉해피해 농민들 “‘농작물 재해보험’ 전면 개선해야”

농협손해보험 사과·배 등 냉해 보상률 80→50%로 낮춰
실질적인 피해보상 제대로 못받아...“정부 특별 지원책을”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돕기 위해 도입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나주 배 냉해피해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사상 최악의 냉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농작물 재해보험의 전면개정도 요구했다.

농민들이 이처럼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는 냉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액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했다.

농업인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80%를 지자체가 지원하고, 특히 유기인증 친환경농가에 대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자부

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재해보험은 46개 품목이 대상이다. 하지만 냉해의 경우 올해 일부 과수에 대한 보상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손해보험은 올해 재해보험 손해를 급증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을 개정해 사과와 배, 단감, 뽕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냉해 보상률을 80%에서 50%로 낮췄다.

직접 피해액의 절반만 보험에서 보상해주는 수준으로 보상률을 낮춘 것이다.

이처럼 올해 냉해 보상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지난 4월 불어닥친 이상저온으로 대규모 냉해가 발생하면서 농민들은 보상률 상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나주 배 냉해피해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올봄 이상 저온현상으로 전국 7만 4000여 농가 4만8000여ha, 나주에서는 2000여 농가 1959ha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농작물 냉해가 발생했다.

대책위는 “현재의 농업재해대책법이나



‘나주 배 냉해피해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사상 최악의 냉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피해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비현실적 한계로 농민들은 깊은 절망과 함께 근본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냉해 보상률이 이처럼 급감한 배경을 두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지난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소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보험만큼 현실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전반적인 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어 “보상을 변경과 같은 약관 변경은 농협손해보험에서 금감원 승인 후 농식품부에 보고되는 것인데 농민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 손해를 이유로 농민들이 입을 피해는 무시한 채 불합리한 약관 변경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승호 기자

광주 집단감염 ‘인재’...학원·교회 코로나 방역수칙 안지켰다

광주고시학원 강사·수강생 마스크 미착용...17명 확진 일곡중앙교회도 방역지침 무시



광주지역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하는 가운데 8일 오전 광주고시학원 건물에 폐쇄돼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광주 117번 확진자가 해당 건물 4층 학원에 다녀온 뒤 광주 4명, 전남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지역 코로나19 집단감염자들이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고시학원에서 현재까지 확진자 7명이 발생했다.

이 학원에서는 광주 117번, 124~125번, 127~128번, 전남 29번, 광주 130번 환자가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고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또 전남 영암에 거주하는 50대 남성도 8일 1차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2차 조사 중이다.

시가 추가 접촉자를 찾기 위해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해당 학원은 방역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인호 기자

“홀로 아니면 둘이 산다” 61%

1인 세대 38.5%...4인 16% 불과

‘4인 가족’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올해 심지어 ‘3인 세대’ 비율보다 떨어졌다. 홀로 혹은 둘이 사는 게 60%를 넘을 정도로 대세가 됐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83만9408명으로 주민등록 세대수는 2279만1531세대로 집계됐다.

인구는 지난해 말에 비해 1만453명 감소한 반면 세대수는 31만65세대가 늘었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이를 보더라도 인구는 연평균 5만명 증가에 그쳤으나 세대수는 연평균 40만 세대가 증가했다.

이는 1인 세대와 2인 세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인 세대와 2인 세대를 합하면 60%가 넘는다. 세대당 인구는 2.27명이며 1인 세대 비율은 38.5%로 가장 높았다. 2인 세대 23.1%, 3인 세대 17.6%, 4인 세대 15.8% 순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전남의 1인 세대 비율이 44.1%로 가장 높고, 강원이 42.8%로 뒤를 이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